

나와 민주주의

해방의 영성으로 가득 찬 조화순 목사

대담 · 글 | 조성혜



조화순 | ● 1934년 인천에서 출생 ● 1954~56년 용인군 남사면 남사 초등학교 교사 ● 1962년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 ● 1966년 목사안수 받음 ● 1966~83년 인천 기독교도시산업 선교회(총무) ● 1970~84년 한국사회선교위원회 위원(신·구교 연합) ● 1974년 5월 긴급조치 2호 위반 구속 ● 1976년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 ● 1978년 11월 긴급조치 4호 위반 구속(3년 언도) ●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쿠데타 시 75일간 구금됨 ● 1983년~95년 달월교회 담임목사 ● 1986년 5월~88년 5월 기독교교회협의회 도시농촌분과 위원장 ● 1987년 2월~89년 2월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회장 ● 1988년 인천 일하는 여성나눔의 집 이사장 ● 1989년 5월~91년 2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 1989년 3월~91년 3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시흥지방 감리사 ● 1991년 기독교사회운동연합 공동의장 ● 1991년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중앙위원 ● 1992년 2월~1993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 1995년~현재 은퇴 후 평창에서 하늘다리공동체를 운영 중.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이사장, 생명 영성을 향한 춤 췌라피 모임 진행, 명상기도모임 진행

1962년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뒤 66년에 목사가 되면서 곧장 인천 기독교 도시 산업선교회에 뛰어들었다. 이때부터 83년까지 18년 동안 서슬퍼런 유신치하에서 노동자와 함께 독재에 항거하며 오롯이 '노동자의 어머니' 자리를 지켜냈다. 1970년대 민주노조 투쟁의 상징이 된 동일방직 노조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강한 감동과 깨우침이 일어난 곳이다. 정년을 한참이나 넘겨 둔 예순둘의 나이에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 매밀꽃 피는 강원도 봉평의 산자락에서 '힘의 가치'를 배우고 있는 조화순 목사의 나이는 이제 일흔이 되었다. 조화순 목사를 마주하고 앉으면 쏟아져 나오는 입담에 모두 수다쟁이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어느새 어깨 힘이 빠지고 세상살이 고민과 사람 사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수없이 이어지는 구속과 감금, 유치장 생활도 인간 해방의 열정과 사랑을 꺾지 못했다. 그저 예수님의 삶을 열심히 따라서 살고자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지는 조화순 목사와의 대담은 그 자체가 신명나는 이야기 판이 되었다. 이 귀한 말들을 그대로 옮겨본다.

공장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남달리 공명심이 뛰어나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마다않고 앞장서 온 기질을 타고 났긴 했지만 나는 교사 생활을 하다 신학교 졸업 후 평범한 목회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내가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것은 오글(한국명:오명걸) 목사와 조승혁 목사로부터 산업선교회 일을 제안받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들은 내 일생에 예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입니다. 산업선교가 있는 지조차 모르는 나에게 찾아와 함께 산업선교를 하자고 제의했죠. 난 그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달월 교회에서 한창 재미있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싫다고 했는데 끈질기게 와서 설득하는 거예요. 아마 감리교 신학대에 가서 젊은 여자 목사가 있나 하고 미리 알아보고 찾아온 듯했어요.

처음에는 몇 번 거절하다가 “모두 노동현장에 들어가 선교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과정이 두려워 못한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이 하기 싫은 것이면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가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승낙했어요. 기관이라고 하면 월급이 많고 똑똑하고 뻘

있는 사람들이나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안 간다고 했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면 기꺼이 가겠다고 응한 것입니다.

그 후 내가 겪은 노동현장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공장에 들어가는 나에게 오명걸 목사는 “이미 예수는 공장에서 노동자와 함께 일하며 역사하고 있으므로 전도한다는 건방진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노동자에게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만 하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알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목사가 전도하는 것이 사명인데 뭐가 건방진 생각이냐’는 생각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66년 똥물투척사건으로 유명한 인천 동일방직주식회사에서 시작한 나의 첫 노동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우물쭈물하며 서 있는 내게 한 이쭈마가 소리를 뻑 지르며 “야, 이리 와서 이거 설거지해”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남에게 그런 식으로 명령을 받아 본 적이나 무시당해 본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인가, 나는 목사인데’ 하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아픔과 모욕을 실컷 맛보았지요.

며칠 후 그다음 일자리로 옮겨가서는 노동자들과 친해지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건 나에게 “저 여자 오늘 처음 왔는데 왜 저렇게 말이 많아” 하며 호루라기를 불고 소리를 치며 야단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린 노동자들 앞에서 34살이나 먹은 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어찌나 망신스럽던지. 내일 당장 그만두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간신히 그날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명령과 지적으로 나는 모욕감과 수치심, 증오심에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 네가 목사냐. 목사라면 어찌 그토록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증오심을 갖는단 말이냐’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갔습니다. 갑자기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내려 뒤범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억울해서 우는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의 성육신에 대해서 커다란 깨달음이 일

어났어요. '예수가 수없이 당한 그 모욕의 의미를 나는 몰랐구나.' 고난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용서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통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시였고 깨달음이었고 예수와의 만남이었어요. 일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지요.

나의 변화는 이처럼 모욕당하는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다음날부터는 공장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죠.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왕초노릇을 해 왔고, 교회에서도 항상 대접받으며 생활해 온 내가 서른네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접이나 받으며 살려고 했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성경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러한 체험과 깨달음은 18년 동안 산업선교 활동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고 절대로 이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지요.

내가 여성노동자를 사랑하는 까닭

70~8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일구어낸 여성노동자 운동은 나의 신앙고백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하게 쓰시면서 구원의 신비를 증언하신 분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면서도 여성이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기에 가장 강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깨닫고 배운 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 힘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수고한 것에 비해 상상 못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성노동 현장이었고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배운 그대로 현장에서 실천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변화되면서 금방 표정도 변하고 밝아지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노동자라는 억압을 벗고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내는 과정이 그들을 아름답게 한 것이었어요. 아무 옷이나 걸쳐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흘렀어요. 어떤 아이는 그동안 친구들을 만나면 공장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집에서 논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신이 나역 앞에서 양손을 펴들고 '나는 노동자야' 라고 외치고 싶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여성들은 애 낳은 고통, 시집살이 고통 속에서 남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본능적으로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성들이 가진 신비요, 힘이자 생명력이라 생각해요. 수많은 세월 동안 당하고 매맞고 한 맺히고 또 남자들이 엉망으로 해놓은 걸 끝까지 책임지고 애 키우고 했던 그 모든 일로부터 생명의 신비가 생겨난 거죠. 나는 이런 여성들의 삶을 보면 정말 신비스럽게 느껴져요. 인간이 어떻게 저걸 다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여성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 역시 고통의 체험 속에서 원색적인 믿음, 강한 믿음을 만들어 왔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믿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만 기대와 열정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싸우고 감옥에 가고 하면서 바보 같을 정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목회지 덕적도에서 미친 사람을 낮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나는 가장 의식도 없고 가장 믿음이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이 "조희순 목사의 신앙심이 가장 무섭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쓰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그 이후 '나는 부족하다, 약하다' 라고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생각들이 안개 걷히듯 사라졌어요.

동일방직에서의 탄압과 나의 성장

1972년 남자 지부장이 이끌어 온 어용노조를 뒤엎고 민주적인 여성지부장을 선출한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이후 회사, 경찰, 안기부 등의 악랄한 탄압을 받게 되었고, 나체시위, 똥물투척 사건 등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노동조합을 사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1978년 4월 124명이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후 해고 반대 및 복직투쟁이 몇 년간 이어졌는데 가장 극심한 탄압을 받은 사건은 그해 9월 기독교 회관 대강당에서 동일방직 사건 연극 공연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인분 투척을 클라이막스로 끝냈으나 이 장면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관객들은 물론 연기자인 여성노동자 자신들까지도 새삼스런 분노를 느껴 자리를 떠날 줄 몰랐죠. 흥분한 여성노동자 10여 명은 강단 앞에 붙어 있던 플래카드를 떼어 들고 단 아래로 내렸습니다. 기독교 회관 1층 공간에 뻑뻑이 들어찬 무술 경관과 사복 형사들은 여성노동자들을 난타하며 건물 밖에 포진하고 있던 기동경찰 쪽으로 차서 내보내거나 몸을 번쩍 들어서 내동댕이쳤습니다. 수십 차례 이어지는 주먹질과 발길질로 모두 죽는 줄 알았죠.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나간 사람이 수도룩하게 나왔습니다.

나는 2층 강당에서부터 3~4명의 전경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계단으로 끌려 내려갔고 결국 실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경찰은 정신을 잃은 나를 들어 기동대 차 안으로 던져 내가 거꾸로 차 속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날 사용한 플래카드는 내가 숨겨 간 것인데 한 여성노동자가 계속 자기가 했다고 우겨 '조화순보다 더 악랄한 년'으로 몰려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나는 19일을 살고 석방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참된 교회, 바른 신앙을 위해)

나더러 안기부나 외국의 신학자들이 종종 물어보곤 했습니다. 해방 신학의 영향을 받았느냐고. 나는 “공부 안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건 알지도 못하고 그런 책을 본 적도 없다. 오로지 성경밖에 아는 것이 없고 그 성경하고 삶을 생짜배기로 연결시키려고 애쓴 것뿐이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론이나 이념보다 ‘이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이놈들이 오늘은 어디 가서 잘까. 이놈들이 이담에 늙어서 잘 살게 되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을 지니고 여성노동자들을 대했죠. 이런 한국 여성들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러면서도 큰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가 아닌가 해요. 예수께



강원도 봉평에서 대담하고 있는 모습(왼쪽이 조화순 목사)

서 보여주신 삶을 살아야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체가 모여 있는 거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떤 부분이라도 해야 마땅하지요. 손의 일을 하든, 발의 일을 하든 그리스도가 다하지 못한 일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느끼고 서로 고백하고 확인해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형식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도 예수살기 운동을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자선과 봉사를 좀더 충실하게 하고 교인들에게도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께 붙여졌던 죄목 ‘노동자 선동죄’가 내게

74년 나는 영장도 없이 체포되었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음으로 구속되



강원도 봉평에서 대담하고 있는 모습(왼쪽이 조화순 목사)

서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야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체가 모여 있는 거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떤 부분이라도 해야 마땅하지요. 손의 일을 하든, 발의 일을 하든 그리스도가 다하지 못한 일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느끼고 서로 고백하고 확인해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형식이 있고 예배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도 예수살기 운동을 좀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자선과 봉사를 좀더 충실하게 하고 교인들에게도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께 붙여졌던 죄목 '노동자 선동죄' 가 내게

74년 나는 영장도 없이 체포되었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음으로 구속되

어요. 그런데 그때 사회를 보던 목사가 갑자기 나를 보고 내려오더니 하나님 이 보냈다면 나보고 오지 않은 강사 대신 강연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미국 감리교 선교회 초청을 받아 출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동료들로부터 제발 몸조심하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죠.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단상에 올라가서 모두 잊어버렸어요. 내 특기지요. 그날도 나는 그때 당시 동일방직 사건과 기독교 회관에서 동일방직 사건 연극을 재연하면서 '박정희가 빨갱이' 라는 말이 나와서 노동자들이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는 것을 폭로했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로 유명한데 하나는 독재로 유명하고 하나는 고문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때 구속될 때 법정에서 한나의 최후 진술이 너무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잘 안나는데 청중을 보면서 30분 동안 내 특유의 강연을 하고 나니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안기부 직원들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받은 구형은 7년이었는데 "남녀차별하지 마라" 하면서 여자라고 적게 구형을 한다며 판사한테 항의했습니다.

그다음에도 무수한 연행, 구금, 구류, 구속 등이 있었는데 80년 5월 17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5월 17일 새벽에 연행될 때는 광주사건 발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게 없고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되었고, 아무런 활동도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광주민주화 항쟁이 서울까지 확대될까 봐 미리 사전에 구금한 것이었어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과 관련한 조사를 핑계로 말입니다. 안기부로 끌려가서 지하 감방에서 75일간을 살았죠.

그 후 나는 산업선교협의회회 주관으로 그 당시 공포의 상징이었던 삼청교육대와 광주 사건을 폭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하자는 제의를 했어요. 밤샘 토론 끝에 모두 하기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한 주교가 그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큰소리로 "난 언제 주교가 되지?" 하고 외쳤죠. 나중에 최초로 기독교 입장에서 광주 사건을 미

국이 주도했다는 성명서를 냈죠. 권호경 목사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불들려 갔지요. 그 후로도 1년은 광주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당시 광주 사건을 정리해서 알려야 하는데 본인들이 잡히면 목사님 이름 델 테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냐고 물었죠. 나는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모두 조화순에게 밀어버리라면서 돈도 대 주고 뒷바라지도 많이 했어요.

물론 기독교 자체 내 선전도 많이 했어요. 부활주일 연합예배 때는 광주 진상을 알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독재에 항거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성명서도 뿌렸지요. 그때 지문 묻을까 봐 장갑을 끼고 밤새 인쇄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장갑이 뺨 뚫릴 지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잘 안 받으려고 해서 유인물을 봉투에 일일이 넣어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부활주일 행사 때 누가 어디서 설교를 하는지 다 파악해 전날 강사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면서 광주 이야기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어요. 정춘수 목사가 앞장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했지요. 우체국에서 광주 진상을 담은 편지를 교회마다 부치는 일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지하도 같은 사람 많은 곳에서 유인물을 뿌린 적도 있구요.

나중에 우리 사회선교회 회원들이 “나, 이상한 유인물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우리 말고 또 이런 것 하는 놈들이 더 있어” 하면서 너무나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이 ‘나’ 인 줄 몰랐던 거죠. 물론 나는 시치미 똑 떼고 있었지요.

세월과 시대의 변화 속에 생긴 나의 변화

감옥에 잘 가는 사람은 성격이 단순하다고 해요. 한마디로 순수하죠. 태생적으로 앞뒤 계산을 잘못하는 나는 정말 감옥에 많이 갔어요. 너무 많아 생각도 잘 안 나요. 동료들이 이번에는 절대 말조심하고 구속되면 안 된다고 다짐을 해도 이상하게 단상에 올라서면,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상황이 닥치면 모두 다 잊어버려요. 옳은 거라 생각하면 겁이 나지 않고 단상에 올라가면 거침없

이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을 그대로 나도 모르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지요. 제게는 그 자체가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는 못 말리는 조화순'이 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이제 시골에 내려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자연 속에 묻혀 사니 정화가 되었습니다. 순해졌지요. 옛날에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모두 다 이해가 가고 끌어안게 돼요. '우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앞서고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자연이 나를 변화시킨 거라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명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몸에 전류가 흐름을 느껴요. 몸도 많이 좋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후배 여자 목사라도 나누고 싶어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주로 말을 많이 하니깐 이때 만나면 말을 안 하고 침묵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해 경청하는 연습도 합니다. 산길도 걷고, 각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하는 민주사회의 상과 한국 민주화의 과제

작은 것이 소중하게 대접받고, 꼴찌가 적절한 대접을 받고, 없는 사람이 중심에 설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이고 또 민주사회의 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해 온 가치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가치가 아니라 자본의 가치에 가까운 것이 더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삶 역시 자본의 가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이고 나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평화롭고 순하게 만듭니다. 미국에 있다가 캐나다만 가봐도 금방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가난하면 각박해져서 서로 다투기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가난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가 내 개인적인 화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소박하고, 콩 반쪽을 나누어 먹을 줄 아는 품성을 우리가 되살려 내야 합니다. 앞으로 자본은 점차 인간과 자연을 고갈시킬 것이고 환경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불편해도, 좀 더디더라도 가난하고 소박한 인간 중심의 삶을 되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언어로는 민주주의고 종교적인 언어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깊은 관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정부나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시각에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왜 미국이 원하는 것에 무조건 추종하며 굴욕적인 시각을 가지는지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이러한 시각에 보수적인 기독교권이 가장 앞장서 있는 것도 저로서는 가슴 아프고, 맹목적인 극우 세력이 점차 폭력적으로 되지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오늘날 사회운동이 지향해야 할 일

봉평에 와서 돼지감자 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노란 감자꽃이 얼마나 예쁜지 사방에 키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잡초를 몇 번 뽑아주다가 지쳐서 내버려두었는데 어느날 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성히 자란 감자꽃 옆에 잡초가 그늘에 갇혀 맥을 못추고 있었어요. 그때 '세상에는 악도 선과 같이 공존하는구나. 그런데 그 악을 뽑으려고 기를 쓰면 우리만 삭막해지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빨리 성장하고 선한 세력끼리 연대하여 힘을 키우면 악이 무력화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의 운동이 세상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산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진 산 속에 비록 잡초 속에 둘러싸인 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면 그 꽃은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꽃이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감동이고 이를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향기나는 것들을 파 보면 모든 미생물들이 향기나는 곳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의 운동은 자잘한 이익을 버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향기를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조화순이는 더 조화순다와질 때 가장 세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신앙 체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신다는 것을 깨닫고 민중과 함께 하는 길이 곧 예수 삶에 동행하는 길임을 온 몸으로 실천해 온 조화순 목사님. 목사님과의 대담을 통해 '인간 해방의 열정은 아무도 못 말리는 여자 목사 조화순'은 그녀 말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녀만의 달란트를 가장 잘 알고 가장 확실하게 사용한 행운아였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을 내 주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준 조화순 목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

조성혜 gender40@hanmail.net | 본지 편집위원, 인천노동자회 지도위원, 부평자활 후견기관 관장, 인천인권영화계 조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부대표 등 역임.